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민수기 17:1~13

【인도자를 위한 예화】

교회에서 만난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는 교회에 대해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담당 교역자나 말이 통하는 선후배를 만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 형제와 대화하던 사람들은 직접 그 사역에 참여해 보라고 조언했지만, 자신은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물론 그 형제도 자신이 맡은 일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잘 걷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던 형제를 하나님은 목회자로 부르셨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반대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자, 그 형제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수없이 했던 불평과 원망이 씨앗이 되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열매로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불평과 원망을 버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지금도 미혹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나요?

【배경 이해하기】

17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16장) 직후의 상황을 다룹니다.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 반역을 꾀한 고라 일당 및 지도자 250명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많은 사람이 염병으로 죽습니다. 16장에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표현입니다(7절).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브 라کم’은 ‘자신의 방향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른다’라는 표현입니다(11절).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로우’는 ‘그분을 대적하여’라는 뜻이며, 하나님을 향해 교만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오만방자한 죄입니다. 고라 일당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불만과 의문을 품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시는 이야기가 17장에 펼쳐집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백성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불만을 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셨나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2~5절)

하나님은 각 가문의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 개를 취해 각각 그들의 이름을 쓰고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해 백성의 원망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민수기 17장 2절에 ‘마테’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 사용된 ‘마테’는 이스라엘 백성의 각 조상 가문 곧 열두 ‘지파’를 의미하며, 두 번째 사용된 ‘마테’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지팡이는 리더십을 상징했는데,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려 주시기 위해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지휘관의 이름을 각각 쓰게 하셨는데,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존재의 표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선택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지도자 이름을 지팡이에 쓰게 하시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원망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권위에 다른 백성이 도전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적용과 나눔 I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한 일이나, 나의 원망이 그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쉽게 불만과 원망을 표출합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잘못된 처사로 여기며 불평합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억울함 때문에 남을 원망하며 악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그러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관찰과 묵상 II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 열두 개를 증거의 장막 안 하나님 앞에 두자,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8절)

레위 사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8절의 ‘이튿날’은 증거의 장막 앞에서 하루가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죽어 있던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있는 나무로 바꾸는 데 소요된 시간은 불과 하루였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라 해도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뿌리의 유무와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생명력으로 성장하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을 하루 만에 살리셔서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 감정까지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적용과 나눔 II

마른 막대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또는 공동체에 나타내시도록 간구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친히 부여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교훈을 주시거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사람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침체와 낙심에 빠져 생명력 없이 살고 있을 때, 몸과 마음에 힘이 없고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